

소로 보는 세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6 April
vol. 189

02 | 목차

03 | 점자로 말해요 - 왈츠

04 | 시선집중 - "건강하시죠? 저는 잘 지냅니다!" / 이승철(중도시각장애인 재활지원센터 팀장)

06 | 테마기획 - 4월 20일은 국가에서 지정한 '장애인의 날'입니다.

08 | 인터뷰 - 큰 귀로 세상의 소리를 듣는 토끼, 베니와 함께 세상을 바라보는 구경선 작가님을 소개합니다.

10 | 포커스 - 여러분의 착한 목소리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경제교과서를 만듭니다!

12 | 함께 사는 이야기 - 삶은 흔적 남기기 / 천병은(시각 1급_서울특별시 강서구)

13 | 월드 리포트 - 호주 멜버른, 시각장애인 100여 명에게 운전 경험 제공! - 도요타, 시각장애인 위한 웨어러블 기기 개발

14 | 뉴스앨범 - SK네트웍스, 저소득 시각장애인 위한 후원금 전달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2016년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 2016년 전국중도시각장애인재활지원센터 담당자 연수 실시 - 제1회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전문가과정 열려

16 | 시각장애인을 만나면 - 안내인과 동행한 시각장애인을 만날 때



손으로보는세상 2016년 4월 189호

발행일 2016년 4월 15일 발행처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발행인 이병돈 편집 김민지

주소 07236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로22(여의도동 17-13) 이룸센터 601호

T 02,6925,1137 F 02,6925,1117

홈페이지 www.kbuwel.or.kr 한글도메인 시각장애인.kr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kr

디자인 한국엠디 02,867,1921 캘리 모노D

봄기운이 완연한 4월입니다.

바람에 흩날리는 벚꽃을 보고 있다면
잔잔한 왈츠의 선율이 떠오릅니다.

왈츠는 점자로 어떻게 나타낼까요?

왈 츠

읽기
① ④
② ⑤
③ ⑥

점자일람표															
자 음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된소리
	⠠	⠠	⠠	⠠	⠠	⠠	⠠	⠠	⠠	⠠	⠠	⠠	⠠	⠠	⠠
받 침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	⠠	⠠	⠠	⠠	⠠	⠠	⠠	⠠	⠠	⠠	⠠	⠠	⠠	
모 음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	⠠	⠠	⠠	⠠	⠠	⠠	⠠	⠠	⠠					
약 자	가	나	다	마	바	사	자	카	타	파	하	억	언	얼	연
	⠠	⠠	⠠	⠠	⠠	⠠	⠠	⠠	⠠	⠠	⠠	⠠	⠠	⠠	⠠
약 어	그래서	그러나		그러면		그러므로		그런데		그리고		그리하여			
	⠠	⠠	⠠	⠠	⠠	⠠	⠠	⠠	⠠	⠠	⠠	⠠	⠠	⠠	⠠
숫 자	수표	1	2	3	4	5	6	7	8	9	0				
	⠠	⠠	⠠	⠠	⠠	⠠	⠠	⠠	⠠	⠠	⠠				
문 장 부 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영 어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	⠠	⠠	⠠	⠠	⠠	⠠	⠠	⠠	⠠	⠠	⠠	⠠	⠠	⠠
대 문 자	p	q	r	s	t	u	v	w	x	y	z	영어시작		끝	대문자
	⠠	⠠	⠠	⠠	⠠	⠠	⠠	⠠	⠠	⠠	⠠	⠠	⠠	⠠	⠠

[나, 다, 마, 바, 자, 카, 타, 파, 하] 약자뒤에 모음이 이어질 때는 약자를 사용하지 않는다. | [ㅅ, ㅈ, ㅊ, ㅊ, ㅈ] 다음에 약자 'ㅇ'이 올때는 'ㅇ'으로 바뀐다.

"건강하시죠? 저는 잘 지냅니다!"

이승철(중도시각장애인 재활지원센터 팀장)



근래에 들어 새해를 맞이하면 지인 분들께 전화로 새해 인사와 함께 안부를 묻고 건강을 기원하는 덕담을 나누는 것을 관례로 행해왔었다.

올해는 유행성 A형 독감에 걸려 몸져눅는 바람에 관례처럼 행하던 전화로 안부 인사를 전하기는커녕 친지방문도 못하고 말았다.

이번 독감의 기세가 얼마나 대단한 지 감염자는 점차 늘어가고 심지어 4월 까지 지속될 거라고 한다.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 독감예방접종을 받으라고 매스컴에서는 알리고 있다.

개인적으로 독감은 경제적으로도 큰 손해다. 다른 것은 제쳐두고 의료비용만 따져보아도 독감예방접종비용은 2만원인데 비해 독감검사비용은 3만원 그리고 치료비를 포함하면 2.5배정도의 비용이 들었으니 말이다.

이번 기회를 통해 건강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는 '장애인건강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약칭 장애인 건강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그간 우리나라의 장애인과 관련한 제도는 특수교육 및 통합교육 기반 확충, 장애인연금, 의무고용제, 활동보조제 등의 제도 도입, 장애인 편의증진법, 차별금지법 등 관련 법령 제정으로 교육 분야, 생계 분야, 사회 분야에 있어 기본 틀을 갖추었으나, 이에 비해 보건 분야는 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제도의 골간이나 법적 기반이 갖추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의료보장에 대한 욕구는 32.8%로 소득보장에 대한 욕구 38.5%와 함께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건강지표에 있어서도 장애인의 70%이상이 만성질환을 갖고 있었으며, 비만정도, 우울증 경험 등에 있어서도 비장애인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장애인의 건강이 비장애인에 비하여 열악한 이유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데 따른 것이며 이동성 제약, 비용부담, 정보 부족, 부적합한 서비스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장애인건강권에 대한 욕구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장애인 건강법’이 2015년 12월 29일에 공포되었으며,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7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 중 ‘장애인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을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 포함하여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한 점과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의 일환으로 장애 특성 및 생애 주기에 맞는 건강검진사업 및 장애인 건강관리사업을 실시하도록 한 점이 특히 주목된다.

그 외 장애인의 의료기관등 접근 및 이용 보장을 위한 편의 제공 및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건강교육 및 종사자 대상 장애인 건강권 교육, 장애인 방문 진료사업 그리고 장애인 건강보건연구사업과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사업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제 장애인 건강권 확보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본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 2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각 장애 특성과 욕구에 맞는 시범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요구와 의견제시가 필요할 것이다.

그동안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권익향상을 위한 다양한 법이 제정된 바 있었으나 제도적으로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아 유명무실한 법으로 남는 경우도 있었다. 본 장애인 건강법이 그러한 전례를 따르지 않도록 감시와 지지도 함께 보내야 하겠다.



4월 20일은 국가에서 지정한 ‘장애인의 날’입니다.

4월 20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4월 20일은 국민들에게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장애인의 재활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기념일인 ‘장애인의 날’입니다.



‘장애인의 날’은 1981년 UN총회에서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을 주제로 ‘세계 장애인의 해’를 선포한 것에서 시작되었는데요. 이 날은 세계 모든 국가에서 기념사업을 추진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72년부터 민간단체에서 개최해오던 ‘재활의 날’을 이어 1981년부터 나라에서 ‘장애인의 날’로 명명하고 기념행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사실 1981년 당시에는 정부의 법정기념일 축소 방침으로 인해 장애인의 날이 법정 기념일로 지정받지 못했었는데요. 이후 1989년 12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1991년 4월 20일이 법정기념일인 ‘장애인의 날’로 공식지정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43조 규정에 “국가는 국민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날과 장애인 주관을 설정한다.”고 명시함으로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이 법정기념일이 된 것이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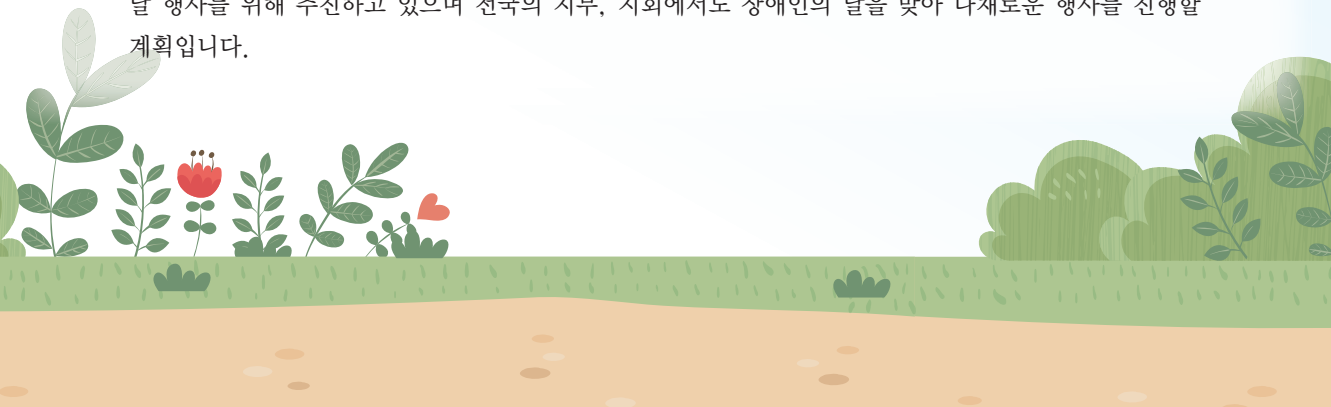
그렇다면 왜 ‘장애인의 날’은 4월 20일로 정해졌을까요?

4월은 1년 중 모든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로 장애인의 재활의지를 부각시킬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의미로 ‘장애인의 날’은 4월로 지정되었고, 또한 4월에 있는 다른 기념일들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20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장애인의 날’인 4월 20일이 토요일이거나 일요일인 경우 기념행사는 4월 18일에 진행되는데요. 4월 19일에 진행되지 않고 18일에 진행되는 이유는 4·19 혁명 기념일 행사와 겹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장애인의 날 공식 행사에서는 장애인 인권 현장을 낭독하고 장애인 복지 유공자에 대한 훈장, 포장, 표창이 수여됩니다. 특히 1997년부터 ‘올해의 장애극복상’을 제정해 장애를 극복한 장애인을 발굴하고 시상함으로써 장애인에게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또한 4월 20일부터 1주일을 장애인 주간으로 설정하여 장애인 당사자 단체, 지방자치단체에서 기념행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의 주최기관은 정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장애인의날행사추진 협의회’입니다. ‘장애인의날행사추진협의회’는 장애인당사자단체 모두가 장애인의 날 행사를 치르자는 취지로 결성된 협의회로 23개의 장애인당사자단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도 장애인의 날 행사를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전국의 지부, 지회에서도 장애인의 날을 맞아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큰 귀로 세상의 소리를 듣는 토끼,

베니와 함께 세상을 바라보는 구경선 작가님을 소개합니다.

커다란 귀를 가진 토끼 캐릭터를 본 적 있으신가요?

이 토끼의 이름은 ‘베니’입니다.

세상의 많은 소리를 듣길 바라는

‘베니’를 그린 구경선 작가님을 만나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경선 작가님.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으로 보는 세상 독자 여러분. 저는 '구작가' 라는 닉네임으로 글 쓰고 그림을 그리는 구경선입니다. 제가 그린 토끼 '베니'와 함께 세상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처음 그림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어릴 때부터 청각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말을 배우는 데 오래 걸렸어요. 7살 쯤 말을 배우게 되었는데 그 전에는 의사소통이 능숙치 않아 그림을 그려서 제가 원하는 것을 표현했었거든요. 그 때 그림이 재미있어 지기도 했고 주변에서 잘 그린다고 칭찬도 해주셔서 그림을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큰 귀를 가진 토끼 캐릭터 '베니'는 어떻게 만들 어지게 되었나요?

저는 어릴 때 앓은 열병으로 청각장애를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현재 세상에 존재하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죠. 그래서 '베니'를 그리게 되었어요. '베니'는 다른 토끼들보다 훨씬 큰 귀를 가지고 있는데 큰 귀로 세상의 많은 소리를 들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어요. 그렇게 '베니'가 만들어지게 되었죠.

2013년에 망막색소변성증이 진행되고 있어 나중엔 시력을 잃게 된다는 판정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그 때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겨내실 수 있었나요?

사실 제가 많이 둔한 편이라 처음에는 제 눈에 이상이 생겼다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함께 다니던 친구가 제가 자꾸 부딪히고 넘어지는 것이 심상치 않다며 병원을 가보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망막색소 변성증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부정하기도 했고 두렵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분노 하기도 했고 그 분노가 지나가니 결국은 받아들 이게 되더라고요. 지금도 가끔 우울할 때가 있지만 그 시간에 하나라도 더 보고 기억하고 싶은 마음으로 주변 사소한 것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느끼며 힘내고 있습니다.

현재 작업은 어떤 식으로 진행하시는지요?

저는 청각장애로 인해 평형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면 길을 바르게 걸어가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직접 손으로 그림을 그리는데 현재는 그림이 흐트러지는 경우가 많아 선을 바르게 그리기 위해 같은 그림을 5번 정도 다시 그려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요.

그렇다면 현재 어시스트처럼 보조로 함께 작업 하시는 분은 없으신가요?

현재 어시스트는 두고 있지 않아요. 물론 어시스트가 있다면 좋겠지만 지금은 제가 어시스트를 책임질 수 있을만한 능력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저 혼자 작업하고 있어요.

구경선 작가님은 책 '그래도 괜찮은 하루'에서 버킷리스트를 작성해 실행해나가고 있다고 하셨 는데요. 여태까지 실행하신 것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작년 8월에 꿈에 그리던 프랑스 파리에 방문하게 되었어요. 오르세 미술관에 가서 사진이나 인터넷으 로만 접할 수 있었던 미술 작품들을 감상하는데 눈물이 나오려고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주책이라고 생각할까봐 꼭 참았지만 옆에 계시던 한국 관광객 아주머니께서 많이 행복해 보인다고 해주셨어요. 제 행복한 표정이 얼굴에 드러났던 것 같아요.

나중엔 시력을 잃게 된다면 어떻게 활동을 이 어 나갈 계획이신가요?

사실 지금은 코앞으로 닥친 어려움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막연히 생각해보면 보이지 않더라도 촉각이 남아 있으니까 촉각을 이용해 '베니' 는 아니더라도 작품 활동을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 시력을 잃기 전까지 도예 등 할 수 있는 많은 활동들을 배워볼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착한 목소리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경제교과서를 만듭니다!

올해로 5회를 맞은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착한도서관프로젝트’

이번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경제교과서 제작에 참여할 착한 목소리를 모집했는데요.

손으로 보는 세상 4월호에서 열기 가득한 오디션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지난 3월 25일부터 3월 27일까지 3일 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스탠다드차타드은행(SC은행) 본점에서는 ‘착한도서관프로젝트 시즌5’의 오디션이 진행되었습니다. ‘착한도서관프로젝트’는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 연합회와 SC은행이 함께 5년 동안 진행해 온 프로젝트로 참가자들의 목소리 기부를 통해 시각장애인을 위한 오디오 콘텐츠를 개발하는 사회공헌 캠페인인데요. 이번에 진행된 ‘착한도서관프로젝트 시즌5’의 주제는 ‘시각장애 청소년을 위한 경제교과서’로 SC그룹이 청소년들의 금융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개 중인 사회공헌 활동 FE4Y(Financial Education for Youth)의 커리큘럼과 금융감독원이 지정한 금융교육 표준안을 바탕으로 시각장애인 전문 자문단의 참여를 통해 제작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오디션은 사전 신청자와 현장 신청자를 포함해 약 3,6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되었는데요. 시각장애인 심사위원단이 ‘목소리 오디션’을 통해 1차 합격 여부를 결정하면 ‘착한 스튜디오’에서 2차 녹음 심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2차 녹음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285명의 착한목소리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150개의 경제교육 콘텐츠를 녹음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제작된 ‘시각장애 청소년을 위한 경제교육 오디오 콘텐츠’는 오는 4월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의 미디어접근센터를 통해 전국 모든 맹학교와 점자도서관, 시각장애인 관련 단체 및 기관에 기부될 예정인데요. SC은행에서는 시각장애인은 물론 일반 청소년들도 제작된 콘텐츠를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착한도서관프로젝트’ 무료 모바일 앱으로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종복 SC은행장은 오디션 현장에 방문해 “청소년들이 더 큰 꿈과 목표를 갖고 사회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경제교육은 필수적이다”라며 “많은 분들이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해 소리로 세상을 만나는 시각장애 청소년들에게 경제교과서를 들려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시즌5를 맞은 ‘착한도서관프로젝트’로 시각장애인의 경제콘텐츠가 풍성해지길 바랍니다.



삶은 흔적 남기기

| 천병은(시각 1급_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방이라도 비가 내릴 것처럼 오전 내내 하늘은 찌푸려 있었다. 작년 11월 초, 무슨 바람이 불었던지 평소 가까이 지내온 몇 사람이 의기투합하여 서울을 벗어나 바람을 쐬 작정으로 승용차에 몸을 실었다. 핸들 주인은 일행 중 한 사람의 부인이었다. 우리 모두 거주지가 강서구였기 때문에 승용차는 금세 김포가도를 내달렸다. 반쯤 열린 차창으로 날아든 바람의 감촉은 가슴 후련하도록 시원했고, 이따금 묻어오는 풀, 나무, 꽃들의 내음은 싱그럽기가 그지없었다. 날랜 동작으로 강화도에 들어선 승용차는 거침없이 강화도를 지나 교동으로 이어지는 다리를 건넜다. 그곳은 북한을 가까이 두고 있는 까닭에 검문 절차를 밟아야 했다. 초소가 있어 삼엄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검문하는 군인에게 신분증을 제시하고 다리를 건너 교동 섬으로 들어가자 작을 것으로만 여겼던 섬이 생각과는 달리 크게 느껴졌다.

6, 70년대에 보았던 나직한 주거 환경이며 가게들, 방앗간 에다 약방이며 다방까지 그야말로 시간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간 것 같은 광경 앞에 감탄을 억누를 수가 없었다. 그곳에는 그 당시 거리거리 벽들마다 붙여졌던 쥐잡기 캠페인 글귀며, 분식장려 표어 그리고 산아 조절 포스터 까지 곳곳에 붙어 있는 벽보 앞에 서서 치미는 웃음을 억누를 수가 없었다. 정말이지 시공간을 훌쩍 뛰어넘은 듯한 기분이었다. 옛 추억을 만끽하려는 듯 무리 지어 움직이는 외지인들의 모습을 곳곳에서 만날 수 있었다. 북쪽이 가장 가깝게 보인다는 망향대를 향한 좁은 비탈길은 군데군데 잡풀이 자라 있었다. 구불구불 길을 올라 북쪽을 건너다보고 있노라니 빗방울이 하나 둘 떨어지기 시작했다. 고향을 북에 둔 누군가의 걸음에 예서 밟아, 망자의 몸으로 잠든 무덤이 초라한 물골로 수풀에 뒤덮여 있음을 보니 가슴이 먹먹해졌다. 고향을 지척에 두고서도 가지 못하는 주검의 설움인 양 느닷없는 빗줄기는 점차 굵기를

더해 갔다.

교동 드넓은 들녘은 황금으로 무르익어 갔고, 신세대 치장을 완강히 거절이라도 하듯 주택이며 상점들의 외모는 말 그대로 옛날 그 모습 그대로였다. 다방이라고 쓰인 가게에 들어가 돌미나리차를 시켜 마시며 주인 마담과 시간을 거스른 대화는 흥미진진 이어졌다. 작은 규모의 재래시장은 나지막한 상점들이 즐비하게 늘어 서있었고, 토산품을 파는 나이 지긋한 상인들의 모습에서 어릴 적 추억의 한 단면을 떠올릴 수 있었다.

교동을 나와 외포리 해안가로 달려 횃집 하나를 잡고 들어서자 빗줄기는 제법 굵어졌다. 휘장 위로 떨어지는 빗소리를 들으며 전어회를 음미하는 기분이야말로 그 어떤 표현 방법도 끌어 댈 길이 없었다. 내리는 빗줄기에 몸을 내맡긴 채 해안가를 걸을 때는 목청껏 노래라도 뽐고픈 심정으로 기분이 고조되었다. 옷이 비에 축축이 젖어들어도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 일행은 그저 즐겁기만 했다. 숨이 가쁘도록 분주한 도시 생활의 험덥임에서 벗어나 머리와 가슴을 정갈하게 세척할 수 있었던 기회였다.

우리의 삶이라는 시간적 공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졌다고 생각된다. 다만 그 시간이라는 조각들을 사람마다 어떤 형태와 모양으로 짜 맞춰 가느냐에 따라 나름 삶의 유익과 보람의 향방이 결정되지 않을까 사료된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은 각자의 시간을 어떤 모양으로 조합하셨는지가 궁금하다. 여러분의 주어진 오늘 시간은 돌아올 수 없는 시간이기에 소중할 수밖에 없고, 후회란 의미조차 없는 속앓이에 지나지 않다. 그러기에 하루하루는 소중할 뿐 아니라 신중히 다룰 수밖에 없는 이유이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나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후회란 놈과 벗어나며 살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절실히 공감하는 바이다.

호주 멜버른,

시각장애인 100여 명에게 운전 경험 제공!

호주 멜버른의 한 자동차 경주장에서 특별한 이벤트가 마련되었습니다. 약 100명의 시각장애인이 운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 것인데요. 이벤트에 참가한 시각장애인 100여 명은 직접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하며 속도를 즐겼습니다. 시각장애인이 운전하는 차량 보조석에는 운전이 능숙한 교관이 함께 탑승하여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등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번 이벤트에 참가한 시각장애인 카일 코건은 자신의 첫 운전 경험에 대해 “교관의 지시를 받아야 했지만 앞이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운전할 때 특별히 다르다는 생각을 들지 않았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번 이벤트로 운전에 참가한 시각장애인 뿐만 아니라 지켜보는 가족들의 마음도 따뜻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도요타,

시각장애인 위한 웨어러블 기기 개발

일본 자동차회사 도요타(TOYOTA)에서 시각장애인들의 이동을 돕는 웨어러블 기기를 개발했습니다. 이 웨어러블 기기의 이름은 블레이드(Blaid)로 어깨에 걸고 있으면 오피스 빌딩이나 쇼핑몰 등의 옥내 공간에서 사용자가 보다 정확하게 목적인 장소에 도달할 수 있도록 안내해준다. 예를 들면 화장실, 에스컬레이터, 계단, 출입구 등의 장소를 인식해 사용자를 인도하는 것인데요. 블레이드는 현지팡이나 안내견, 스마트폰의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위치를 측정하는 기능) 장치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보다 많은 환경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요타의 관계자는 “도요타는 단지 ‘좋은 차’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동 수단이 한정된 사람들을 돕는 일을 포함한 모빌리티의 진화에 도전한다”고 말했는데요. 앞으로 선보일 도요타의 기술이 기대됩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NEWS



SK네트웍스, 저소득 시각장애인 위한 후원금 전달

지난 3월 21일 월요일 11시에 서울특별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4층 회의실에서는 SK네트웍스의 후원금 전달식이 있었습니다. SK네트웍스는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과 함께 맹학교 학생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동행, 시각장애인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대체자료 제작 지원 등에 힘쓰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저소득 시각장애인 가정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위해 전통문화 상품권 1천만 원을 후원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일에 앞장서는 SK네트웍스, 감사합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2016년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회장 이병돈)는 3월을 맞이하여 2016년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습니다. 3월 22일 오후 2시, 대전 KT 인재개발원 대강당에서 이루어진 이번 대의원총회에는 서울, 부산, 전남, 대구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약 300여 명의 대의원이 참석하였는데요. 약 2시간 정도 진행된 대의원총회에서는 2015년 사업 실적보고 및 결산보고에 대한 내용과 2016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에 관한 안건이 다루어졌고 또한 시각장애인계의 발전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되는 등 열띤 회의가 이루어졌습니다.



2016년 전국중도시각장애인재활지원센터 담당자 연수 실시

지난 3월 29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교육실2에서는 ‘2016년 전국중도시각장애인재활지원센터 담당자 연수’가 열렸습니다. 이번 연수는 5개 지부의 재활 코디네이터를 비롯해 중도시각장애인재활지원운영사업을 담당하는 42개의 연계 지회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졌는데요. 효과적인 사업 운영과 우수한 실무자 양성을 목적으로 운영 목적과 방침, 상담기법, 기초재활교육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가자들은 이번 연수를 통해 교육 담당자로서의 역량을 증진할 수 있었으며, 재활교육 방식의 정보교류 및 발전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1회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전문가과정 열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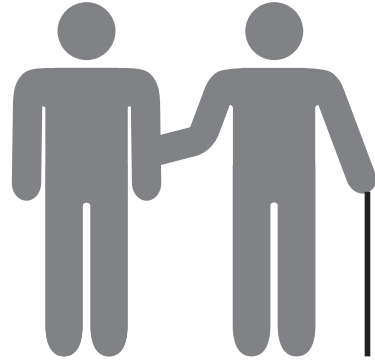
서울 동작구 여성플라자에서는 4월 4일부터 4월 8일까지 4박 5일의 일정으로 ‘제1회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전문가과정’이 열렸습니다. 이번 전문가과정에는 각 지역의 지부나 지회에서 편의시설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들이 참석하였는데요. 참가자들은 5일 동안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점검에 대한 현장 교육 및 현장 실습 등의 교육을 받았으며 교육 받은 내용에 대한 토의와 테스트도 이루어졌습니다.

추후 2016년 하반기에 이번 전문가과정 참가자 중 일부가 각 지역의 공공기관 모니터링 사업을 진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안내인과 동행한 시각장애인을 만날 때

안내자를 동반한 시각장애인을 만났을 때 간혹 안내자에게만 눈인사를 한다거나 모든 일처리를 대신하게 한 경우는 없는지요? 안내자의 역할은 분명 시각장애인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시각장애인이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 도와주기 위해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시각장애인은 통역이 필요한 외국어를 구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시각장애인과 나눠야 할 이야기를 안내자를 통해 이야기하려 하는 것은 시각장애인에게 큰 결례가 될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는 단지 보는 것만이 불편할 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 시각장애인 인식개선 ‘장애체험스쿨’ 프로그램 안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시각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단체인원을 대상으로 ‘장애체험스쿨’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장애체험스쿨’ 프로그램에서는 시각장애에 대한 교육 및 시각장애 체험을 진행합니다. 참가를 희망하는 단체가 계신 곳으로 찾아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현재 초등학교, 중학교, 자원봉사센터, 도서관 등에서 장애체험스쿨 프로그램을 참가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대 상 초·중·고등학교 및 사회인

내 용 시각장애이해 및 에티켓교육, 한글점자이해, 시각장애체험, 여가·문화체험 등

진행장소 신청기관을 방문하여 진행

체험시간 3시간 이내(봉사활동 확인서 발급가능)

상담·접수 02-950-0133 박승만

| 후원안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전국 50만 시각장애인의 복리향상과 권리증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시각장애인 단체입니다. 후원자의 정성된 사랑은 시각장애인들에게 소중히 쓰일 것이며 후원자의 후원금은 소득세법 제34조, 법인세법 제18조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지로번호 7608162

계좌번호 (예금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국민은행 835-02-0114-768, 497801-96-200273 우리은행 428-04-103943

하나은행 757-810001-08405

외환은행 170-22-00710-6